

시론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자리,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답자의 46%에 달해 청년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층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가 전남은 0.47로 전국최고수준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남의 현주소는 생산력과 소비력이 함께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생산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도 일자리에 관한 윈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 이상 일자리 문제가 미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역은 물론 국가의 생활이 걸린 문제임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인구고령화의 3중고가 가속화되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남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응

답자 46%에 달해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가 높고 투자대비 일자리 유발계수도 높은 분야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등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등의 농수축산 ICT융합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나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순천 콘텐츠코리아랩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과 소프트웨어(SW) 연계로 SW융합 신기술과 신제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지역 ICT/SW산업 분야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청년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T융복합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가 높고 투자대비 일자리 유발계수도 높은 분야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등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등의 농수축산 ICT융합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나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순천 콘텐츠코리아랩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과 소프트웨어(SW) 연계로 SW융합 신기술과 신제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지역 ICT/SW산업 분야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청년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社說

영호남 가교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수돼야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양 지역 협력이 돋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경유지 지자체 장, 김경진·박주선·주호영·이재호 등 영·호남 경유지 국회의원 등 총 200여 명이 지난 3일 국회포럼에 참석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설 사업비 6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100대 국정 과제 누락에 이어 올해까지 단 한 번의 예산 배정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경유지 지자체들은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본격적인 지원 요청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 대구시를 비롯해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국도균형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영호남 화합과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구와 지역 총생산액(GRDP)이 수도권에 50% 집중돼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광주 자동차산업, 대구 자동차부품산업, 목포 조선산업, 여수 석유화학, 포항 철강산업, 부산 물류산업 등 분산 배치된 산업 클러스터들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상호연계로 단일 경제권 형성, 경제효과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초광역남부경제권 형성은 물론 남부철도 연계를 통해 국제철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팽목항 떠난 304명의 영령, 희생 잊지 말자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추모했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뼈아픈 교훈을 남긴 채 지난 3일 철거됐다. 이번 철거는 '선체 인양과 해저면 수색이 끝나면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겠다'는 진도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4년5개월, 분향소 설치 3년7개월만이다.

세월호 참사 9개월 만인 2015년 1월14일 세워진 팽목항 분향소는 추모의 상징이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단원급 학생들과 부모가 맨 처음 만났던 장소로 전 국민에게 눈물바다로 안긴 곳이다. 차디찬 바다 속에서 부모 품으로 돌아온 아이를 맨 처음 끌어안고 오열했던 곳이자, 오랫동안 찾지 못한 희생자를 눈물을 적시며 기다렸던 곳이기도 하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가 바로 세워졌지만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부조리를 걷어내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변혁을 낳았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모든 의혹이 풀려야만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304명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고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팽목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사진과 유품은 안산의 4·16 기억저장소로 옮기고, 분향소 내 외부 추모조형물은 2021년 팽목항 인근에 문을 여는 국민해양안전체험관에 보존할 계획이어서 우리의 다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때까지 미약한 힘이지만 끝까지 함께 할게."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의 마지막 방명록 글이 희생자에 대한 간절한 추모의 마음을 대신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재계한 부조리와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적폐청산을 완수해 '나라다운 나라'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장칼럼



범은경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주)베토씨앤씨 아기잠연구소 소장

아기잠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

누군가 집안일만 조금 도와주면 아기가 자는 동안에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훨씬 고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는 시간 동안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얇은 잠으로 빠져 나오는 수면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자는데 어른과 아기들은 수면주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작고 어린 아기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자주 먹어야 하므로 수면주기가 아주 짧게 반복됩니다. 먹여놓으면 바로 깊은 잠에 빠져 들고 잠들었다 싶으면 또 금방 깨서 젖을 찾지요. 그런데 수면주기가 긴 어른은 깊은 잠에 빠져들기까지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일단 깊은 잠에 들어가면 잠이 다시 얕아질 때까지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처럼 금방 잠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렵지요.

어른과 아기의 수면주기를 생각하면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밤을 상상해볼까요? 아기를 재우고 이제 잠깐 눈을 붙여볼까? 하면 벌써 아기는 다시 깨서 젖을 달라고 읊니다. 몇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

면 지친 엄마는 어느 순간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데 잠결에 아기가 악을 쓰고 울어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하지만 도저히 목이 일으켜지지 않아 한참 만에야 안간힘을 다해 일어납니다. 울다 지친 아기는 젖을 먹자마자 금새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나 억지로 잠이 깬 엄마는 여간해서는 다시 잠이 들지 못합니다.

만약 신생아 때와 똑같은 이런 밤이 아주 오래 반복된다면 마침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느낌이 조금씩 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폭 자지 못하는 아기들은 케 제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낮에도 자주 보채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엄마의 우울한 기분이나 육체적 피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기 수면문제가 길어지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피로는 두모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에 대한 엄마의 감정을 짐작하므로 불안해졌지요. 불안해지면 더 많이 보챌테고요.

이제 엄마의 우울은 다시 깊어집니다. 가끔이지만 아기가 밟다는 생

각을 하고 짜증을 참지 못해 아기에 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엄마는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기의 수면습관이 좋아지면서 평안한 밤이 와도 엄마의 우울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못합니다.

아기의 수면문제가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너지기 쉬운 부부관계입니다.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든 부부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느라 인성을 자주 높여가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거나 이웃이 가족처럼 북닥거리고 살면서 서로 힘을 보태던 때는 아기의 수면문제가 아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다. 이제는 아기의 수면문제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져서 잠시 견디고 있으면 쉬이 지나가는 그 정도의 문제로 취급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아기의 수면은 엄마의 우울감을 크게 증폭시키기도 하고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며 부부 사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

추석 명절 벌초 안전사고 주의해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은 고대 사회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온 가족이 모여 가족애를 나누고 조상들에게 차례와 성묘를 통해 효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 중 성묘를 하기 위해 벌초는 즐거운 명절을 위한 준비작업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소방청 통계현황을 보면 2015년 한해에만 55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피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초를 하다가 장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예취기는 동력을 이용하여 날을 회전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돌이 튀겨 다치거나 예취기 날에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용 전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모지 주변 돌들은 미리 골라내며 풀을 너무 짧게 베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어 흙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싼다.

벌에 쓰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벌떼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초하고자 하는 장소 부근에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벌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은 옷(노랑·흰색)을 피하여야 하며 향수, 스프레이, 화장품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것도 피하여야 한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먼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습격을 받을 때에 20~30m를 신속히 떨어져 주변보다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자세를 낮추면 벌떼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 벌에 물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벌이 다가오면 천천히

자리를 뜨고 벌이 사라지려고 하면 그대로 둔다. 벌은 공격전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해야 하며 죽은 것 같은 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수풀이 우거진 곳, 늪지, 냇가, 잡초가 우거진 곳, 나무 덩굴, 버려진 건물, 바위, 나무가지 등에 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목이 있는 신발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사고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응급처치를 위해 주위사람과 동행하고 압박붕대나 소독된 거즈, 일회용밴드, 상처 세척에 쓸 수 있는 생수,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정민주·순천소방서 황조119안전센터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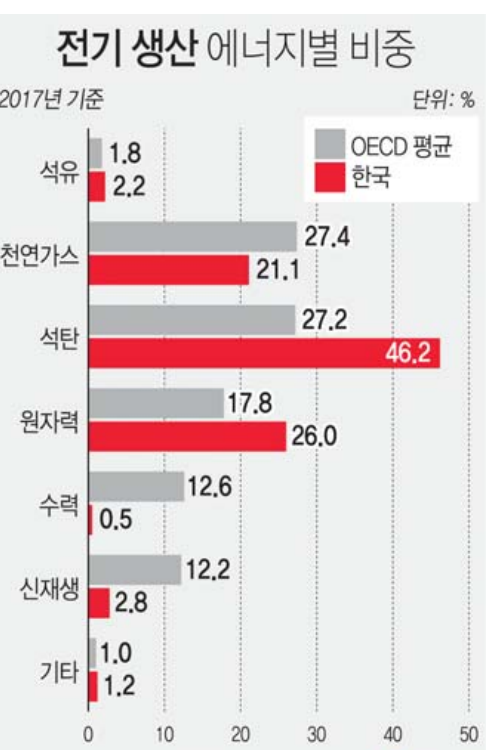
한국, 원전·석탄발전 비중 72%...“OECD 평균 대비 쏠림 심각”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70%를 넘는 등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4대 발전 믹스'를 고르게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에너지원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각각 26.0%와 46.2%로, 합계 72.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전 및 석탄발전 비중이 각각 17.8%와 27.2%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량은 지난해 148.4TWh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에 랭크됐다. 인구를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으로, 특히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은 우크라이나(54.5%)에 이어 2위였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도 지난해 264.4TWh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남아공, 폴란드,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이어 9위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발전이 원전과 석탄 발전에 쏠려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로, OECD 회원국(12.2%)을 크게 밑돌며 전체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심지어 비(OECD) 국가의 평균(5.5%)보다도 낮았다.



자료/BP 2018 세계 에너지통계 보고서 연암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정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 진 부 650-2080 서 설 실 650-2006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9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